

1. 종교다원주의 배격
1. 동성애 반대
1. 차별금지법 반대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162호
12월 19일
2020년
토요일

牧羊新聞

총회 상하비례 기자회견 안내

■ 국민은행
061701-04-176877

■ 예금주
예수교대한남녀성회

■ 문의
02)2675-5181~3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 서울 다-07857 주권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코로나 극복 '통제·강압' 안 돼

한국교회연합, 방역 빌미 교회 억압 행태 강력 비난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대성 목사, 이하 한교연)은 지난 12월 8일(화) 성령을 받고 교회 방역을 빌미로 교회를 강제로 억압하려는 방역당국의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철저한 방역조치를 통해 전염병 확산을 제어하고 있는 교회에 대해 정부는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고 있어 한교연은 이를 교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강압과 통제, 차별의 방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해결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한교연은 "확진자의 증감 추세를 예측하지 못하고 속박, 외식, 편파 소비주권을 발현해 국민들을 밖으로 내몰고, 보수 집회는 차벽을 걸고서 돌리돌리 탄압하면서 민노총 등 진보집회는 적당히 허용하는 방역의 이중 잣대, 편 기르기 방역정책의 결과와 책임까지 모두 국민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울러 "한국교회는 그동안 이웃과 지역사회와 교회를 나누며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한국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양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파도가 불어났지만 목회자 겸 목회자로서는 방역을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방역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를 기도해 왔다"고 밝혔다.

예배는 영적 호흡, 철저한 방역(방역)에 이어가야 한교연은 "예배는 영적 호흡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신앙의 자유는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다. 따라서 나라의 주권인 국민이 보편적 권리인 신앙의 자유를 규율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스크를 쓰고 철저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까지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한국교회 연합(대표회장 권대성 목사, 이하 한교연)은 "확진자 3명이 다녀갔으나 단 행령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은 수의의 모 교회의 사례는 마스크를 쓰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까지 비대면 예배, 20명으로 인원 제한을 통제한 것은 종파주의"라고 이의 종지를 촉구했다.

한교연은 또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예배를 통한 영적 안락처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성탄절에 교회에 가는 신자들의 안전한 권리를 빼앗는 전체주의적 통제조치 대신 구주 성탄을 가리키는 대립적 대립한 한국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국교회에 요청하며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령 전문. 코로나19 위기 극복, 통제와 강압으로 안 된다. 정부가 8월 14일부터 3주 동안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따라 수도권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다음과 같이 한국교회에 임정을 밝힌다.

우리 국민 모두는 중국 우한 폐렴, 즉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전 세계적 확산 속 예수를 한해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보냈다. 코로나19의 한해가 불타는 실의 현상에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소시민들이 IMF 때보다 더 힘든 고통의 날을 견뎌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현실은 갈수록 희망은 사라지고 절망과 탄식이 엄습하고 있다.

그런데 또 다시 정부는 국민의 생활 전반을 불로 강압과 통제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 그 방법들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효과적이었던 대한민국은 벌써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어야 했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고 있는 것이다. 확진자의 증감 추세를 예측하지 못하고 속박, 외식, 편파 소비주권을 발현해 국민들을 밖으로 내몰고 보수 집회는 차벽을 걸고서 돌리돌리 탄압하면서 민노총 등 진보집회는 적당히 허용하는 방역의 이중 잣대, 편 기르기 방역정책의 결과와 책임까지 모두 국민이 지는 것은 부당하다.

우리는 정부가 전 세계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해 온 K-방역의 결과가 오늘 또 다시 온 국민의 삶과 생활 전반을 옥죄고, 모든 것을 멈추려는 강압적 통

제를 통해서만 유지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들을 반복해, 방역 당국이 국민을 강제하는 방법이 아닌 국민 스스로 자발적 방역의 주체가 되도록 정부 스스로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방향으로 호소하고, 설득에 나서길 것을 요청한다.

한국교회도 그동안 이웃과 지역사회와 교회를 나누며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냈다. 일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때마다 한국교회가 마치 코로나19의 진원지인 양 마녀사냥식 여론몰이의 파도가 불어났지만 목회자 겸 목회자로서는 방역을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방역을 위한 조치를 준수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를 종식시키기를 기도해 왔다

예배는 영적 호흡이며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 신앙의 자유는 누구도 구속할 수 없는 천부인권이다. 따라서 나라의 주권인 국민이 보편적 권리인 신앙의 자유를 규율해야 할 이유가 없다. 마스크를 쓰고 철저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 교회까지 예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확진자 3명이 다녀갔으나 단 행령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은 수의의 모 교회의 사례는 마스크를 쓰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까지 비대면 예배, 20명으로 인원 제한을 통제한 것은 종파주의"라고 이의 종지를 촉구했다.

많은 국민들이 오랜 통제로 오는 피로감과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길어지는 상황 속에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호소하는 국민들을 위해 예배를 통한 영적 안락처로서의 역할을 다 하려 할 것"이라며 "우리는 정부가 성탄절에 교회에 가는 신자들의 안전한 권리를 빼앗는 전체주의적 통제조치 대신 구주 성탄을 가리키는 대립적 대립한 한국 전 세계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한국교회에 요청하며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국교회 연합(대표회장 권대성 목사, 이하 한교연)은 "확진자 3명이 다녀갔으나 단 행령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은 수의의 모 교회의 사례는 마스크를 쓰는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교회들까지 비대면 예배, 20명으로 인원 제한을 통제한 것은 종파주의"라고 이의 종지를 촉구했다.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권대성 목사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자에게 있을지어다"

(벧후 3:18)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지식, 이는 무엇보다도 비모범 수없는 귀중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도 놀라운 신비로우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를 믿고서 찬송을 드리고는 아멘을 마음껏 외치는 찬송가 가사처럼 찬송으로 감동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신 신과 동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신 독생자는 병든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호칭입니다.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형벌을 받게 될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기이한 은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세 직분을 가지시고 이를 온전히 수행하시는 기를 받은 자 곧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사장은 백성을 위하여 제단에 제물을 드리며 백성의 중보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왕은 백성을 보호하고 방위할 삶을 살도록 다스리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리고 국왕의 선지자, 인간제사장, 인간 왕은 각각 그 임무 수행에 헌신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의 임무를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 영원히, 단번에 구속자의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성취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무한하고 무궁하며 성도들의 영혼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구주(救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구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자기를 바칠 자"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이란 예수님을 믿으며 그의 통치를 받게 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는 구주입니다.



조용목 목사

'제주 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청구' 서명지 접수

제주 27개 기독교계와 시민단체...9,005명 제주도민들 양성평등 촉구

제주 양성평등 기본조례 개정 청구를 위한 기자회견이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연합회와 제주성서화운동본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등 제주교계와 제주도민들, 제주교육청부도,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여성가족위원회 등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 총 27개 단체가 연대하여 지난 12월 8일(화) 오전 제주중앙에서 열렸다.

제주교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잘못된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해악에 떨친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해야 하며, '성평등'의 용어는 상위법에 맞도록 '양성평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2019년 12월 제주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성평등'과 '젠더'의 용어를 포함하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

정하여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양성평등을 내세우는 성평등은 동성애 등 제3의 성을 확산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성평등'과 '젠더'라는 용어는 삭제되거나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양성평등기본법에 '성평등' 조항을 양성평등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웃과 청소년을 병행해 하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은 '양성평등'으로 개정하라"고 강조하고 "성평등은 양성평등과는 다른 개념으로 오해하여 성에 대한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 타격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평등의 성, 제주, 건강한 제주를 위해 '양성평등'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27개 단체는 제주 최조

의 주민서명빌드로 총 9천여명의 도민이 서명한 서명 명부를 제주도청에 접수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독교연합회 회장 유승남 목사는 "평등의 성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다음세대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대가족의 의미를 비롯한 일부 모교의 의미를 잃어 평등의 성 제주의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면서 "제주도민의 행복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고 양 양성평등과는 전혀 관계없는 남성과 여성의 성이 아닌 남성의 성을 인정하는 남성과 성을 인정하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용어를 포함시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예배 회복, 바른 가치 위한 모임 개최

부산·울산·경남 기독교연합회 성서화운동본부

부산·울산·경남 기독교연합회와 성서화운동본부 대표들은 지난 12월 11일(금) 오전 개척 교회(담임 박정호 목사)에서 모임을 갖고 한교연에 대해 회복과 바른 가치 확립을 위해 한뜻으로 기도했다.

모임에 앞서 드린 1부 예배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이하 경남기총) 대표회장 박정호 목사의 인도로 경남기총 수석부회장 박정호 목사의 대표기도, 고원교회 교역자 부부 중정장의 특송, 새세대교회 담임 손현배 목사의 설교, 바른기독교총연합회 대표 원대원 목사의 축도로 끝났다.

이날 손현배 목사는 양성 8:46-53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기도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걸고 기도한 다윗은 자신을 고백하려는 사람들을 보며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순간을 떠올렸을 것"이라며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민족을 위해 회복되었음을 간증했다. 2부 회의에서는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 대표회장 임영문 목사의 사회로 장자 소제, 예배회복을 위한기독교총연합회 간담회, 사후종교의 한국교회에 대한 보고, 후속작업들은 모든 시간을 통해 대제 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생명의 말씀



정 부용 목사

· 예수교 대한하나님의성회
부총회장 역임
· 서울남서지방회장 역임
· 대림번역교회 당회장

감사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사와 복이 더욱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해마다 다가오는 성탄절을 올해도 변함없이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때가 다 되어 가면, 또 성탄절이 되면, 너나 할 것이 없이 마음이 들떠 있게 되고, 좋은 추억거리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있고, 무슨 좋은 일을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만년의 교제보다는 온라인 마음의 교제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만 유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온 인류는 예기하며

고 축하해야 할까요? 성탄의 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교회의 하나의 절기로서 축하하는 날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우리의 마음에 성탄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1.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그 이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 분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것을 발견하여야 합니다. 그 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이미 오래 전 구약성서에 예언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구약 미가선지자는 일찍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적을 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 나." (미 5:2)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분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을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그 말씀대로 처녀였던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런 모든 말씀들은 성탄을 맞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성탄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와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진정 이 땅에 내려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셨고, 우리를 죄 사함을 받게 하신 것이기에 이 땅에 오신다는 믿을 받고 오신 것이지 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범람 가운데 빠져 있는 그들의 영혼을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공로나, 자선이나, 열심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에서 의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는 구원받고자 하는

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우리 마음에 그분을 새기는 날입니다.

2. 예수께서 성탄 하신 것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함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 1:23)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려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며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눈물과 고통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인생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고통입니다.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친구를 구하고 사랑을 구합니다. 때로는 쾌락과 자포자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임마누엘의 탄생은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일이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이런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할 것이 기억하면서 더욱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영광이 넘치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생명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이 다른 것들을 찾고 흥청망청 쾌락을 따라가는 성탄절이 아닌 주님 오심을 깊이 되새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성탄의 참 의미

(마 1:21-23)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정부에서 사용하는 '기독탄신일'은 '성탄절' 또는 '예수님 오신 날'로 바뀌어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각 사업장에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보장하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기독교에 대한 명칭이 종교 차별적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 공문에 의하면, 2021년 공휴일을 명시하면서 불교와 기독교의 가짜한 날을 표기하면서, 석가탄신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기독탄신일'로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불교의 석가는 '부처님'으로 하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는 '기독교'로

표시하고 있다. 석가모니를 '부처님'으로 표기한다면, 우리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으로 표기해야 종교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가?

'기독교'이란 말은 중국식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성탄절'을 '기독탄신일'이라고 사용한 적이 없다. 모두 '성탄절'로 표기해 왔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처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이다.

이 규정은 대통령령 제28394호에 의한 것으로, 지난 2017년 10월 17일에 일부 개정된 것이다.

이제는 이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 현재 정부가 사용하는 '기독탄신일'이란 용어는 타종교와 비교하여 분명히 차별적이고, 지금 한국 교회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성탄절'이란 용어와도 맞지 않는다.

이는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 집 어른의 이

름을 차별적으로 호칭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 매우 불쾌하다.

이에 대하여 기독교는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한다. 이는 한국 제1종교에 대한 존중심도 없는 것으로, 1천만 기독교를 무시하는 처사로 본다.

정부는 기독교에 대한 차별적 표기에 대하여, 즉각 수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기독탄신일'을 '예수님 오신 날'로 하든지, 아니면 현재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성탄절'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하라.

성서공회, 제134회 정기이사회

대한성서공회 제134회 정기이사회가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0시 30분에 서초 성서회관에서 개최되었다. 1부 기도회에서는 김윤성 목사(영락교회)가 발원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2부 회무처리에서는 권의현 사장의 사장보고와 사립보고가 있었다. 안건으로는 교단대표로 황순환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김재곤 목사(기독교대한성경교회), 조성봉 목사(기독교한국침례회), 이정현 목사(대한예수교장로회[대신])가 선임되었다. 찬성회원 대표로 이영의 목사, 김경원 목사, 이영호 목사, 박철영 장로, 최규환 장로가 선임되었다.

동정

미래목회포럼 오정호 목사 회장에



미래목회포럼 신인 대표회장에 오정호 세로남교회 목사가 취임했다. 오목사는 미래목회포럼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열어가는 '퓨처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미래목회포럼은 지난 12월 11일(금)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제1회 정기총회 및 이·취임 위촉강사·예배를 열고 2021년 임원진을 위촉했다.

박영환 서울신대 교수, 장년기념



박영환 서울신대 대교수의 출판 및 장년기념회 대식이 지난 12월 10일(목) 경기도 부천 서울신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출판기념회에서 한국기독교통일연구회장 강병오 교수는 "이 책은 기독교 측면에서 본 한반도 통일의 귀한 자료가 되기에 통일 선교에 관심을 가진 이들이 꼭 읽어야 한다"고 했다.

브라운백 목사, 종교자유 강조



미국 국무부의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국무부 차관보가 지난 12월 8일(월) 워싱턴에서 북한의 종교 탄압을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이어 따르면 브라운백 대사는 북한이 미 국무부가 지정한 '종교자유특별우려국'에 올랐지만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는 지적에 동의한다"고 했다.

한교연총무협 회장 김교현 목사



한국 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총무협회는 지난 12월 11일(화) 오전 11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4층에서 제10회 총회를 열고 새 회장이 김교현 목사(예장보수 총무)를 선출했다. 회교단과 단체 총무(사무총장)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선출에는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회를 위해 앞장서기로 결의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교단공과 신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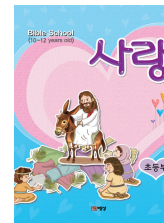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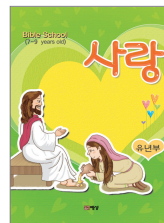
출판권금

- ① 유치부학생용, 유년부학생용, 초등부학생용, 아동부교사용(유치, 유년, 초등부 합본) : 각 5,000원
- ② 아동부 설교과워포인트 USB : 10,000원
- ③ 성인용 : 8,000원

특징

아동부 공과교재

- ① 설교와 공과가 연계되어 있음
- ② 공과는 성경이야기와 활동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 ③ 영어가 삽입되어 있음



공과신청

- ① Fax: 02)2677-5181, 031)441-1793
- ② e-mail: aogk@aogk.org
- ③ 입금계좌: 농협 355-0053-3758-93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와진리교회

문의

전 화: 02)2675-5181~3, 031)447-2922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서울서부지방회



회장 김경규 목사
시영광동서부지방교회



총무 오선현 목사
소명순복음교회

서울중부지방회



회장 김경규 목사
성림교회



총무 이연철 목사
홍재순복음교회



서기 박병수 목사
열린교회



회계 정현 목사
은진교회

서울남서지방회



회장 조선현 목사
대림열린교회



총무 이현 목사
순복음신나교회



서기 정현 목사
대림열린교회

서울남부지방회



회장 정현 목사
상원가나목교회



총무 김경규 목사
민영우교회



서기 정현 목사
우림교회



서울동부지방회



회장 정현 목사
신리교회



부회장 박병수 목사
임마누엘교회



총무 이연철 목사
순복음백전교회



서기 정현 목사
은혜사랑교회



서기 정현 목사
회복교회

경기서부지방회



회장 정현 목사
선원이웃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순복음아미교회



총무 정현 목사
순복음아미교회



서기 정현 목사
드림교회



회장 이연철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총무 정현 목사
부림교회



서기 정현 목사
산성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영복순복음교회

경기남부지방회



회장 정현 목사
발원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오성사랑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별관수안교회



총무 정현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서기 정현 목사
복원교회



서기 정현 목사
전원이웃교회



회계 정현 목사
시냇가에심은나무교회



회장 정현 목사
영복순복음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



총무 정현 목사
반석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예수능복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교회



회계 정현 목사
사랑의복음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정현 목사
대우순복음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영복순복음교회



총무 정현 목사
천원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장 정현 목사
순복음영광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복음사랑교회



총무 정현 목사
일동교회



서기 정현 목사
다누리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예수교회



경기북부지방회



회장 정현 목사
순복음영광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총무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총무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인천지방회



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총무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총무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강원도지방회



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총무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총무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충청도지방회



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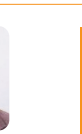
부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총무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총무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충청도지방회



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총무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부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총무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서기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회계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충청도지방회



회장 정현 목사
영광순복음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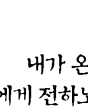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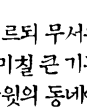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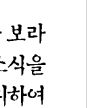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부산동지방회

회장 정영언 목사
순복음감리교회부회장 박병연 목사
순복음광복교회총무 조정화 목사
순복음주님의교회재무 윤세환 목사
순복음주님의교회회계 황현선 목사
순복음복있는교회총무 황세환 목사
순복음은혜교회서기 성경연 목사
순복음영광교회재무 황정순 목사
은혜의복음교회서기 정영언 목사
하늘순교교회재무 조정화 목사
발원순교교회회장 황세환 목사
임대원교회총무 윤세환 목사
장복순복음교회서기 김현배 목사
꿈이있는교회재무 황세환 목사
순복음심원교회회장 황정순 목사
순복음은혜교회총무 정영언 목사
장계순복음교회서기 정영언 목사
순복음은혜교회회장 조정화 목사
순복음새생명교회회장 황정순 목사
세우누리교회총무 윤세환 목사
순복음만남의교회서기 김현배 목사
순복음은혜교회회장 황정순 목사
순복음은혜교회총무 정영언 목사
장계순복음교회회장 황정순 목사
순복음은혜교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눅 2:10, 11)

담임목사 청빙 공고

남원중앙교회는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 직속 지방회 소속으로 창립 68주년 된 교회입니다. 그동안 섬겨오신 담임목사님의 사임에 따라 소명의식이 뚜렷하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목양하며 더불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담임목사님을 청빙 하고자 합니다.

1. 지원자격

- 연령: 만40세 이상~52세 이하(생년월일 1969. 1. 1. ~ 1981. 12. 31.)
- 학력: 하나님과 성도 총회 인준 신학대학원 졸업한 자
- 경력: 하나님과 성도 교단 목사 안수 후 목회 경력 5년 이상인 자(담임 또는 부목사)
- 기타: 대한민국 국적의 기혼자로 교단법과 사회법에 무효한 자

2. 전형방법

- 제출된 서류와 동영상을 통한 1차 심사가 진행되며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임, 추후 초청 설교를 통하여 최종결정.
- 초청 설교와 관련하여 시간과 방법은 개별통지함.

3. 제출서류

- 지원서(경력사항 포함, 최근 3개월 이내 반영할판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본인)와 배우자: 성정배경, 가족사항, 신앙관, 목회경험장점사항과 은사 및 약한부분 포함 등)
- 목회계획서(목회 동기와 철학, 비전, 교회의영계,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계획, 바람직한 교회상 등)
- 설교 동영상: 지정설교(마태복음 13:1-9절 말씀), 자유설교 각 1편, 제한시간 30분 이내(자정매체USB), 설교원고 출력본 포함
- 주민등록등본(본인) 및 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 목사안수 증명서 및 교단 소속증명서
- 하나님과 성도 총회 신학대학원 학위(졸업) 증명서

- 건강진단서(배우자 포함, 건강검진 지정병원 발행)
- 현재 시무교회 재직증명서 및 최근 4주간 주보
- 성범죄 및 범죄(아동학대 포함) 전과 조처 동의서
- 홈페이지에 게시된 양식 그대로 사용

4. 제출기간

2021년 1월 15일까지(마감일 우체국 소인 유요)

5. 제출처

(55771) 전라북도 남원시 남문로 485(죽향동) 남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위원회

6. 참고사항

-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 제출(결연에 '청빙서류 재청' 표기)
- 제출서류는 기금적 한글 표기(자기소개서, 목회계획서는 3페이지 이내로 작성)
- 모든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심사 결과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청빙 결정 후에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연락처: 남원중앙교회 청빙위원회(010-5656-6022, 010-9366-2071)
- ※교회 홈페이지 http://www.nwcc.co.kr

남원중앙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화학연구소 발표)

1) 메놀성물질

- 1 손상된 산화조직 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알레르기 성상염색체 각종 암의 예방(위암)
- (*고려대학교 순음식 교수님 양쪽으로 세계특허)

2) 폴리페놀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 3 고혈압, 지혈안,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금강산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 타식물린

- 1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견,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세포를 붙여도 탁월)
- (전북대 연구논문)
- 4) 호르몬,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 5) 사포닌: 면역력 증가
- 6) 갈락토: 홍화씨의 24배, 멜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밀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호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배가 새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 불포화 지방산: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 비타민 C: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10) 기타 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이 연구를 통해 발표됨.

11)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위양에 효과적임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남.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장기이식인 온라인 편지 전시회

영상 및 전시회 통해 감사와 감동 전달

(예)서양의장기이식증동반부(이)장 박진태가 연말을 맞아 후원장기조직원(예)관리원과 함께 국내 최초로 장기이식인들의 편지를 온라인으로 만나볼 수 있는 '나의 영웅, 고맙습니다' 전시회를 개최한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분부 홈페이지에서 열리는 온라인 전시회에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장기이식인들이 보내준 40통의 편지와 함께 장기이식증을 통해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는 이식인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영상 속에서는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기증을 결심해준 유가족이 등장하여 장기이식자들이 가져온 진정한 기증과 감동을 전한다. 또한 이식인들의 편지를 읽어 제정한 책자는 선정을 통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해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및 이식인 간의 정보공개가 금지되어 있어 서로의 소식을 전할 수 없다. 평소 생명을 나누는 은혜에 고마운 마음조차 말할 수 없었던 장기이식자들은 이번 편지 쓰기 캠페인을 통해 기증인과 유가족들에게 진심을 전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결정을 한 모수(배)발리(나)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의 시지금심을 기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편지 쓰기 캠페인에는 40여 명의 이식인들이 참여했다. 두 번째 인생을 맞이한 이식인들은 본부가 준비한 예쁜 꽃이 그려진 염사에 자신의 사연과 함께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들을 배려하게 적어 보내주었다. 2024년부터 2026년에 이르기까지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등을 이식받은 이식인들은 입을 모아 '생명을 선물 해주신 나의 영웅'에게 편지를 통해서나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흔쾌히 캠페인에 동참했다. 또한 장기 이식을 통해 건강을 되찾은 이식인 중에는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누고자 장기기증 희망 등록에 참여한 이들도 있었다.

월드비전, '70+꿈,길을 걷다' 성황

코로나로 힘든시기 응원의 메시지 전달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안호승)이 지난 12월 3일(목) 정월 70주년을 맞아 수해·노년·예측 분야에서 진행한 스토리 콘서트 <70+꿈, 길을 걷다>를 성황리에 마쳤다.

<70+꿈, 길을 걷다> 콘서트는 ▲꿈과 도전 그리고 삶 이야기 ▲다양한 연령층의 꿈과 인생 이야기 ▲최초·최고의 타이틀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의 도전 이야기를 주제로 월드비전의 꿈멘토와 후원자, 후원 아동, 유망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이날 콘서트는 월드비전의 후원 아동이자 울산 아홉 마을의 해남 소년에서 트로트 가수의 꿈을 이룬 고장우의 '잘했기다' 라이브 공연으로 시작됐다. 공연 후에는 이날 사회를 맡은 방송인 박승기를 월드비전 꿈 멘토로 위촉하는 위촉식이 진행됐다. 이어 월드비전의 꿈 멘토인 안현선과 코디·70대 후원자가 각자 꿈과 도전, 나눔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에도 11대 유망인 신사임당(유연규)이 멘토로 나서 학생 시절 누구나 겪는 진로에 대한 고민과 본인의 도전 사례를 전하며 아동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전문 분야인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더하며 선한 가치관을 전정식 있게 전했다.

토크 사이에는 다양한 공연을 준비,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꿈멘토를 통해 월드비전의 꿈멘토

스트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아동들과 피아니스트 후원의 'You raise me up' 클래식 합주 및 팬텀싱어 3 준우승팀인 남정 42조 크로스 보컬그룹 라비넨스 4인에서 후원 아동의 클리프 공연 'Another Star', '사랑가', '고맙습니다' 등을 통해 따뜻한 위로의 시간을 선사했다.

특히 이날 월드비전은 남정 42조 크로스 보컬그룹 '라비넨스'를 비전 아티스트로 위촉했다. 라비넨스는 12월 3일(목)부터 진행 중인 월드비전의 국내 사업 캠페인 '고맙습니다' 홍보대사로 참여하기도 했다. 라비넨스는 이외에도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재능 나눔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며 의미 있는 행보를 함께할 예정이다.

올해 70주년을 맞은 월드비전은 국내 취약계층 아동이 위기에서 보호받고 꿈을 탐색하며 실현할 수 있도록 '꿈꾸는 아이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랑의 빛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나눔과 사랑 전해

대흥교동협의회(회장 장현일 목사)는 서울시 마포구(우동) 정장) 대흥동주(지)선(예)정) 동장과 주만자(지)우(예)정) 위원장과 함께 지난 12월 2일(수) 오후 5시 동센터에서 대흥동 처음으로 2020 사랑의 빛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을 갖고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하는 지역주민 모두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였다.

이번 행사는 교동협의회 목사님과 주만자(지)우(예)정) 위원장이 함께 진행한 지역사회공헌사업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나눔 행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백영수 동장은 축하에서 "교동협의회 목사님들께서 평소 동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섬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영우 지사(위원장)는 "교동협의회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나눔과 사랑을 전하면서 사

랑의 빛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갖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대흥교동협의회 장현일 목사는 인사말에서 "교회와 공공성과 공교회성 회복을 위해 우리지역 목회자들이 바벨 모어 동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며, 첫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통해 성탄의 빛이 기쁨과 사랑이 되어 모든민은 물론 소외된 이웃 모두에게 축복이 가득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2020 사랑의 빛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주만자(지)우(예)정) 위원장과 교동협의회 소속 그루터기교회(장성연 목사) 대흥교회(이영선 목사) 신촌예배당(김종현 목사) 신성명나루교회(장현일 목사) 새문교회(마지영 목사) 우리교회(김연태 목사) 아름다운교회(이규 목사) 제자교회(강성태 목사)가 후원하고 연합하여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가족세트전도

백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원장

능력 전도의 새로운 세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 된 자나 만민과"(행 13:48) 헌장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최선지 전도의 최강령이었습니다. 예비전 영혼(행 13:48)을 만나면, 피전 도자의 마음 없이 활짝 열리도록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선포하고 동시에 "저를 따라 1년만 기도하시면 구원받고 축복받습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백영수 목사의 전도는 피전도자에게 안수기도를 하면 마치 순한 양처럼 기도를 따라하고, 자신은 물론 가족의 이름 생년월일 심지어는 핸드폰 번호와 주소까지 다 받고 심방 약속까지 잡게 되며 주일예배 출석까지 약속받는 능력의 전도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 시간에 7-16명에게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혁명적인 전도방법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백영수 목사의 능력전도를 접하게 되었을 때가 벌써 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비록 훈련은 받았지만 헌장에 적용한 헌정전도의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장벽은 가족세트전도를 훈련받은 분들이 대부분이 한 번쯤은 경험하는 것처럼 저 또한 가족세트전도는 백영수 목사나 하는 것이지 라고 하면서 할려지 사고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족세트전도의 위력은 능히 알았기에 일단은 몰라서지 않고 계속해서 능력전도 를 사모하면서 제 제도를 했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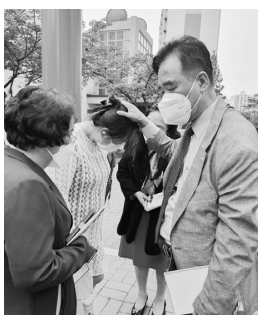
그러니 어느 날 부정부칙 시도는 완전히 깨지고 '세 트 전도! 능력 전도의 새로운 전도의 세계'가 활짝 열렸습니다. 한때만!

과거 10년 목회기간에 등록자가 10명도 안되었는데 최근 8주 동안 매주 1명이 등록하여 약 10여 년 지을 전도 농사를 8주 만에 다 지었습니다.

현장에서 놀라웠던 사례 하나는 전직 경찰관이 영접 기도를 마친 후, 우리를 향하여 막(가)신으로 바하의 욕설을 퍼붓는데, 동시에 일이나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대영(주) 주 친구가 목사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에게 '해수'를 믿고'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현재 은퇴 후, 우대한 만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제는 '해수'를 믿었다'고 다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세트전도 장벽을 깨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3>
가족세트전도 아카데미 회장 백영수 목사
031-692-1691, 010-3730-2573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21-10



신이 내린 바다 천사의 섬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으로 만든 소금물

구강건강의 파수꾼 옥금수(소금물)

옥금수의 효능

천혜의 청정바다인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소금으로 만든 옥금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고 무기질과 인체에 이로움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예로부터 소금은 변을 잘 통하게 해주는 성질과 몸을 따뜻하게 하고 산성화된 몸의 균형을 맞춰주며, 좋은 소금을 잘 먹으면 장수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란 말의 금은 작은 금과 같이 귀한 물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물로 가글과 양치를 하면 잇몸의 염증을 가라 앉히고 구강이 건강해지며 세균으로 가득한 혀와 입 안의 위생 및 장을 이롭게 합니다.

사용법 및 효능

*소금물 1/4컵을 따라 컵속에 묻혀가며 치아에 소금물로 골고루 묻혀지도록 골고루 닦아 줍니다.
*이를 반쪽하며 최소 5회 이상 치아를 골고루 닦아주면 치아 표면 미백과 함께 잇몸 질환까지도 사라지는 광범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치아를 닦은 후 가글하실 때는 입 안 골고루 닿을 수 있도록 여러번 반복해 주시면 성대보호, 감기에 방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양치의 주요 효능

1.충치 예방 2.풍치 예방 3.잇몸 질환 4.혀 살균 5.편도 보호 6.갑상선염 7.혀 기침 예방(소금물 양치, 기침의 효능)

365 치아 건강비전 옥금수
충치·풍치·잇몸질환
옥금수(소금물)로!!

500ml
30개들이 33,000원

옥금수(소금물) 판매점을 모집합니다

www.encyber.com

상담 문의 010-3000-7602 계좌번호 신한은행 110-357-991640(김옥태)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2020 전국 여교역자국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목회자

살림!

2020년도 마지막 골자락인 12월에 복음의 열정을 다시 부여받고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지켜내고 계시는 동역자님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계획에도 없던 한해였습니다.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펜데믹현상, 언택트, 단계별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사회질서를 만들고 비대면과 온라인에배라는 풍속 속에 우리의 삶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목회의 어려움 가운데 예배의 어려움이 겹치고 태풍과 홍수까지 겹쳐서 고난의 연속이지만 오히려 같은 믿음으로 정금같이 단련되길 원하며 예배당 십자가 앞에서 재를 뿌리듯 동국의 눈물로 강단을 적시며 이 민족과 한국교회, 총회

와 교회를 위해 불철주야 기도하고 계시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힘이 되어주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모든 환경이 극복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에 우리 모두 만나뵙길 소원하며 모두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환난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엮어 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와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도 그가 노문을 깨뜨리시며 쇠뿔장을 꺾으셨음이라”(시 107:13-16)

-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올림 -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정책위원장 조동목 목사
은혜와진리교회



총회장 신재영 목사
새김교회



고문 정복음 목사
대광명교회



자문 한순남 목사
순복음만성교회



국장 백영자 목사
녹동순복음교회

조직

임원단

전국

지부

장



예배부장
기광순복음교회
조병희 목사



선교부장
홍복교회
김순자 목사



목회부장
리파사교회
이복순 목사



봉사부장
공정순복음교회
김동애 목사



홍보부장
내셔널순복음교회
안선자 목사



재정부장
성경교회
최정희 목사



행정부장
총계교회
조진애 목사



기획부장
일신교회
조영진 목사



행사부장
순복음/총서기교회
이영순 목사



친교부장
순복음/총서기교회
조은혜 목사



서울중부지부 회장
서울중앙지부 회장
서울남부지부 회장



경기지부 회장
경기중앙지부 회장
경기남부지부 회장



충청지부 회장
충청중앙지부 회장
충청남부지부 회장



전라지부 회장
전라중앙지부 회장
전라남부지부 회장



경상지부 회장
경상중앙지부 회장
경상남부지부 회장



호남지부 회장
호남중앙지부 회장
호남남부지부 회장



제주지부 회장
제주중앙지부 회장
제주남부지부 회장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총회총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전국 여교역자국

국장 백영자 목사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산하 지방신학교

2021학년도 신입입생 모집



(학장 한명점 목사)

예하성부산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부산시 부산진구 새싹로35번길 14
- T E L: 051)803-3927
- F A X: 051)581-0198
- e-mail: yhsbs3927@hanmail.net



(학장 최정식 목사)

예하성광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목련로 372-25
- T E L: 062)952-7004
- F A X: 062)953-5004
- e-mail: sm1004@daum.net



(학장 오일선 목사)

예하성충남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각종 장학제도
- 주 소: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11길 14 한길프라자 B동 301호
- T E L: 041)567-3004
- F A X: 041)575-3171
- e-mail: changdeman@hanmail.net



(학장 김상용 목사)

예하성청주신학교

원서교부 및 접수

- 기 간: 교무처로 문의
- 장학혜택: 학교장 장학금, 이사장 장학금, 지방회 장학금, 목회사역자, 사모, 자녀 장학금
- 주 소: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168
- T E L: 043)274-2265, 273-2211
- F A X: 043)237-2705
- e-mail: ho-gi@hanmail.net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http://www.aogk.org / e-mail: aogk@aogk.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나길 8
TEL:0212675-5181~3 FAX:0212677-5181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 진리교회 편지

참회의 눈물로만...

너무너무 간절한 기도엔 소리가 없다.
깊은 곳에서 나오는 뜨거운 눈물만 있을 뿐이다.
소리 없는 기도 속에 녹아져 내리는 참회의 눈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한 부르짖음이다.

거짓을 좇으며 치장한 세상의 겉옷들이
소리 없는 간절한 기도 앞에...
뜨거운 회개의 눈물 앞에...
하느님... 하느님... 나 아닌 내가 나를 떠나고 있다.
눈물이 뜨기위질수록 희미했던 내 모습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세상과 싸울 용기없이 웅크리고 있는 나...
웅크린 나에게 세상은 자꾸만 겉옷을 얹고 있다.

생각이 뒤엉켜 향방을 잃으니 쌓이는 겉옷의 무게감
은 천근만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남몰래 흘리는 참회의 눈물...

딸아~ "네가 어디있느냐" 부르시는 단호한
아버지의 음성이 어찌 이리 반가운가...
하니도... 하니도... 무섭지 않게 들리는 아버지음성
마음이 평안해 짐은 내가 아버지께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리라...
내가 나를 찾은 기쁨 때문이라...

소리가 부르는 간절한 기도와
흘라리는 뜨거운 참회 눈물 앞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다.

코로나19로 나눔 끊긴 쪽방촌 위문

살롱나비, 후암동 쪽방촌에서 사랑의 쌀 전달

살롱나비 임원진들은 지난 12월 10일(목) 오전 서울 후암동 쪽방촌을 찾아 사랑의 쌀을 나누고 이중 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로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나눔의 손길이 뜸해진 가운데 더 어려운 겨울을 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쌀 전달을 앞두고 김영한 신임대표를 비롯해 김경석 목사, 최철호 선교사, 김윤태 교수, 이원호 사무총장은 소망울찾는이교회 담임 김용삼 목사와 함께 쪽방촌 여러 가정을 찾아 쌀을 전달했다.

이날예배에서 김경석 목사(시원교회 원로, 복세연 사무총장)는 마 5:13-16 말씀을 본문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김영한 신임대표(기독교학술원장, 숭실대 명예교수의 인사와 김윤태 총무(백석대 기독교전통대학원장)의 축



도로 예배를 마치고 김용삼 목사의 인도로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살롱나비는 "코로나19로 박박해진 경제 상황에

도 불구하고 약한 지의 집을 함께 나누어지는 작은 행동을 이어가는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되새기는 귀한 날이 되었다"고 전했다.

사설

최대의 기쁜 소식

예수는 탄생은 역사상 최대의 기쁜 소식이며 가장 놀랍고 위대한 소식이다. 하대왕 천군과 천사는 노라기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눅 2:14) 하였다. 아시아 선지자는 "축일에 않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람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있도다" (마 4:16)라고 예언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과 질병과 약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 성경 눅 4:18,19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실제로 말쑥으로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다. 기적을 베풀어 풍년을 집약케 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하여 그를 믿는

자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여 주신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왕복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의 탄생만큼 기이하고 감동적인 사건은 없다. 때로는 기적과 이사로 위함을 받아 주시거나 피하게 하신다. 때로는 곤경과 고통을 능히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어주시어 신령한 은사를 받아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성도에게 살아가도록 하여 주신다.

예수께서 천하성령으로 신자들에게 오셔서 가르치시고 고백케 하시며 인도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신다. 예수님은 정한 때에 다시 오신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는 했는지 살펴보는 성탄절이 되기를 소원한다.

위기에 처한 나라 위해 기도할 때

북한 김정은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시킬 법안'도 만들라는 협박 직후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서둘렀다. 통일부장관은 외통이 통과 뒤 남북관계 개선 추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처음엔 북한의 보복으로 인한 정경 지역 주민의 안전 문제를 내세우더니 이젠 대놓고 북한 정권을 의식한 조처임을 숨기지 않는다.

대북 전단은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세계 최악의 독재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만을 전하는 활동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대북 인권단체에 3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다. 문명국가라면 이런 반인권·반헌법 입법을 접아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북 배타기는 수시로 나타난다. 영국이 세계 최초로 일관된 대북 중점을 시작한 당일 코로 나 백신 확보에 작가를 놓친 정부는 합작계 선거에 계약 회사의 백신은 효능 신뢰성 논란으로 추가 임신했을 이 진행 중이다. 다른 회사와는 구별짓거나 공급해야 서 단계에서 도입 확정으로 보기도 어렵다.

하루 전방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나기 때문에 백신을 보 적기를 놓친 정부는 당장 우리 스스로를 챙기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 나눠주려고 인단을 한다. 통일부는 이날 "대북 백신 지원" 협력에 필요하다는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장관의 지난달 18일 지령 제안은 바로 다음날 북한에 거부당했다는

데로, 주제를 이제 범정부로 삼는 식이다. 북한은 이날 김정은 단회를 통해 정부를 또 모욕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북 공중 자제를 버리고 작기(難題)의 실효성 있는 방안에 중점을 쏟을 때다.

한반도 경제 변화에도 준비가 미흡한 듯 보인다. 외교부 장관이 미국·일본·중국·인도 등의 안보협력체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한 것이다. 주미 한국대사가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앞으로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우리 정부의 미흡한 외교관을 보여준다.

또한 정경교체 시기에 북한이 도발로 판을 흔들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북 설득 및 압박을 병행해야 한다. 북한에 지속적 압박을 보내고, 한미 간 긴밀한 협력체계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러시아, 유엔 등 주변국 및 세계 국가와 공동 대응에 나서는 등 모든 전방위적 방법으로 북한의 도발 억제에 나서야 한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 구국기도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 나니 안에서 사는 백성이 되는 것은 가장 즉박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다. '내가 내 허물을 뉘우친 구름 같이 내 죄를 안개 같이 없애하였으니 내는 내게로 돌아오라' (단 1:9) 지령 제안은 바로 다음날 북한에 거부당했다는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인 : 배성환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t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2021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정치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자질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aster of Ministry)	3학차	● 본 교단 소속의 목사 또는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교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교 졸업자(4년제) ● 타 교단 교역자로서 본 교무위원회의 동시 허락을 받은 자

2. 전형 방법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일정

- ① 원서 교 부 : 수시
-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 ③ 원서 접 수 : 수시
- ④ 합격자 발표 및 합격자 등록 기간 : 개별통보

4. 전형료

- ① 전형료 : 30,000원
- ② 계좌번호 : 국민은행 061737-04-005354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신학교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추천서(소정양식) 1부
- 반명함판 사진 1매
- 주민등록등본(2개월 내 발급분) 1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사실관계) 1부
- 목회자 소속, 재직 증명서 1부(해당자)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 인정) 학위를 수여하며 교단 목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업로드 됨.
-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유효와 도덕 그리고 성품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경우에는 합격발표 이후에도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ts.org 에서 출력 작성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7.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홈페이지 : www.ucts.org, e-mail : uct5181@naver.com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성명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도덕을 파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임산부 건강을 고려하지 않는 낙태 관련 정부 개정안,
신앙·예배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들을 강력히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젠더 이데올로기에 따라 사회체제를 바꾸고, 표현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기에 강력히 반대한다.

장애,성별 등의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제정되어 있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약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편향된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초한 법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윤리도덕을 무너뜨리며, 어린이들과 여자들을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들 것을 우려한다. 차별금지법은 정당한 비판도 혐오라 하여 처벌해서, 양심, 학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동성결혼 등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최근 정의당은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차별금지법 제정 목표일로 제시하며 다른 정당에 입법 동참을 호소했다. 또한 일부 국회의원들이 인권위 관계자들과 평등법 제정 관련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러한 국회 내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낙태의 96%가 임신 14주 이내 이루어지는데, 임신 14주까지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며, 낙태 사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서 24시간 숙려만으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낙태 관련 정부 개정안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태아는 자신만의 염색체를 가지며 엄마의 염색체와 다르기에, 태아는 여성 몸의 일부가 아니다. 임신 10주가 넘으면 태아 신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며 낙태 방법도 달라진다. 그러므로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위험하다는 산부인과 의사들의 의견이 있다. 임신 24주 조산아의 생존률이 55%를 육박하며, 아기가 성장할수록 낙태 시 임신부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도 매우 커진다. 그러기에 임신 24주까지 사회 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안은 임신부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처사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없이 평등함을 선포하여 국가기관의 법 적용에 있어서 국민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작금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이라는 명목하에 교회만을 대상으로 대면예배를 금지하거나 공용 성경, 찬송가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타종교시설이나 상업적인 중위험시설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가혹한 방역수칙을 적용해 왔다. 현 정부는 어느 시설보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교회를 통째로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0. 12. 30.부터는 정부와 지자체장의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위반 시 3개월 내 시설(교회)운영의 중단이나 시설(교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폐쇄명령 후에도 운영 시에는 시설(교회)의 간판이나 표지판을 제거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제49조제3,4항)이 시행된다. 법상으로는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적용되나 과거 시행되었던 방역수칙이 교회만을 특정하여 강화된 지침을 적용하였기에 소위 교회폐쇄법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회에서는 예배(집합)금지 불응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하거나 경찰을 대동하여 방역지침 준수를 감시하고, 확진자 발생시에는 가능한 구상(구상)을 부담하게 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통과 시에는 교회의 순수한 예배행위가 범죄행위가 되며, 공권력의 감시대상이 되어 예배의 자유가 위축되고 국가가 예배의 방식을 결정하는 통제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에 한국의 모든 교회는 국가가 국민의 신앙적 활동에 개입하여 종교활동의 방식을 규정하려는 시도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행태이며,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종교단체를 범죄집단으로 간주하는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미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예배참석규제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국회는 교회폐쇄법이 될 위헌적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즉시 재개정할 것과 이미 발의된 법안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태아 생명권과 임신부의 건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신 14주까지 무조건 낙태를 허용하며 사회경제적 사유에 대해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강력히 반대한다. 국회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임부 건강을 고려하는 법안을 만들어주길 촉구한다.
2. 최근 국회 내의 차별금지법 제정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 도덕을 파괴하며 어린이와 여자들을 가장 큰 피해자로 만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3. 국가가 신앙적 활동에 개입하는 시도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반하며, 백화점,관공서는 정상 운영하면서 교회 대면 예배는 전면 금하는 잘못된 5단계 방역수칙을 개선하고 국회는 위헌적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재개정할 것과 이미 발의된 법안은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한국교회와 성도가 신앙의 자유를 지키고 예배를 드림으로 범법자가 된다면 모든 책임은 국가에게 있음을 명심하라.

2020년 12월 9일

건강한경기도만들기국민연합, 사)경기기도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개혁교단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 한국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개신교단협의회 전국17개광역시도226시군구기독교연합, 사)충북기독교총연합회, 안산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인권사회분과위원회, 포천시기독교총연합회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전국기독교시민단체협의회, 진평연, 케이프로라이프, 낙태죄폐지국민연합, 바른인성시민운동, 부울경민초목회자연합회, 부울경기독교총연합회, 부기총사회인권위원회, 건강한부천만들기시민연합, 부천동성애대대시민연대, 파주자유목회자연합회, 한기총신문, 애국시민연대(안양,군포,의왕), 사)화성단체협의회, 낙태반대시민단체, 사)대한민국전교회, 대한교정신문, 안양퍼스트신문, 자유통일희망연합, 진리수호국가독인연합, 대한애국가독청년단, 자유시민연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읍은가치시민연합, 대한민국의미래, 기독교신크뱅크, 우리아이자킴이학부모연대, 천안의말씀국민운동, 바른인권센터, 참인권청년연대, 낙태죄폐지국민대국민연합, 국민을위한다, 바른교육실현행동, 생명안전학부모연합, 여성모임혜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자유남녀평등연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 GMW연합, 진리수호연대, 광주전남목회자협의회,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WCC-WEA-NCCK 반대협의